

나태한 정신을 질타하는 창조적 긴장

한 문학평론가가 말하는 '내가 그림을 읽는 이유' ...
사회문화사적 맥락에서 그림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조용훈 | 문학평론가 · 청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그림을 보지 않고 읽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정신과 그 정신을 낳은 시대적 상황을 독해한다는 뜻이다.

사실 그림의 내적 질서와 미적 완성도에서 느끼는 감동보다, 그것을 산출한 사회문화사적 배경과 화가의 욕망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때 받는 감동이 월등히 진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은 유혹적인 텍스트다.

필자는 늘 그림을 보고 즐긴다. 거의 언제나 그림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전달받기 때문이다. 그림과 마주할 때마다 그림은 걱정을 간직한 사랑처럼 다가온다. 그것은 다정하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 올 때도 있지만 대개는 정신을 최고조로 고양시키며 혼절케 하는 경우가 많다. 과장 같지만 그림을 통해 부단한 자기극복과 자기탈각의 상태에 직면하곤 한다. 그림은 살아있는 생명체 그 이상이다. 창조적 긴장으로 늘 정신을 번뜩이게 한다. 나태한 정신을 질타하는 진지한 실감이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그림이 필자에게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전공자보다 한결 여유있게 그림과 대면하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전공하는 시의 경우, 초기의 직관적인 감동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심리적 하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그림의 경우 이런 심리적 부담감에서 일정량 자유롭다. 이런 까닭에 되도록 그림을 즐겁게 향유하기를 원한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는 옛 글은 이런 점에서 필자가 지향하는 바를 가장 잘 대변한다.

그림에서 받는 감동은 그림의 구도에서, 때로는 색채의 조화에서, 혹은 전체적인 비례와 균형, 혹은 붓의 터치 등의 수많은 요소에서 온다. 그런데 그림의 내적 질서와 미적 완성도 등에서 느끼는 감동의 질보다, 그것이 산출된 사회문화사적 배경, 혹은 그림에 작용하는 화가의 내밀한 욕망이나 충동 등의 내포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입체적으로 조명할 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림의 미적 완결성보다 그림을 그린 화가와 화가를 둘러싼 사회·역사·문화적 배경에 의해 탄생된 그림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때 전율한다는 뜻이다. 그림은 유혹이다.

“그림은 텍스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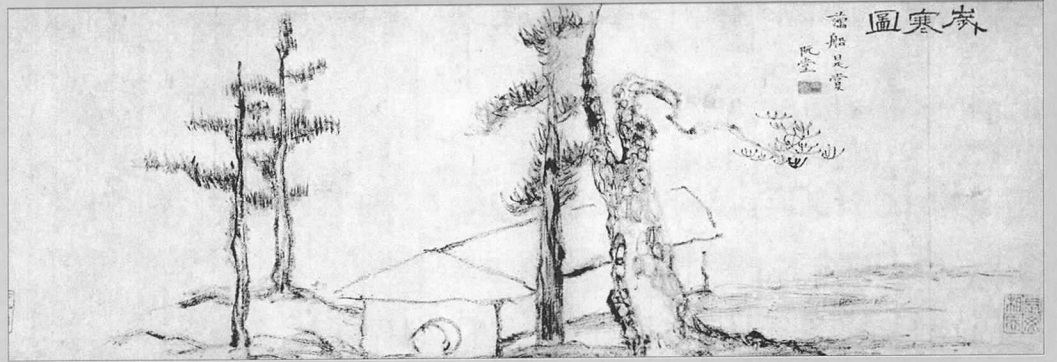
따라서 그림은 단순히 보는 대상에서,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대상으로 비약한다. 그래서 ‘본다’는 용어보다 ‘읽는다’는 용어를 선호한다. 물론 본다는 행위에는 대상을 인식하고 소유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굳이 ‘읽는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 대개의 감상자는 기왕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그림을 일견하고, 나아가 그림 속에 내재된 역사와 문화, 관습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

이처럼 ‘읽는다’는 것은 그림을 언어로 치환하는 행위다. 읽는다는 행위는 그림에 담긴 의미를 그야말로 독해한다는 뜻이다. 이제 그림은 직관적으로 감상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감상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초월해 그림의 이면에 도사린 도상적인 기호 등을 분석·해독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림은 텍스트다.

그림이 자연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성격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하다. 그림 속에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은 물론, 그런 맥락을 체화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표출한 화가의 숨결이 녹아 있다. 더구나 그림은 작가만의 것이 아니고 후대에 계승되면서 그림에 낚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의 체취와 정성과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화적이다. 그림을 볼 때 그것을 제작한 화가의 정신과 그 정신을 낳게 한 시대적 상황을 읽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술품을 통해 시대정신과 해후한다.

당대의 문화특성과 민족성 투영

예컨대 프로이트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성안나와 성 모자〉에서 모성에 대한 화가의 그리움과 동성애의 징후를 읽는 것, 고희의 〈고갱의 의자〉에서 고희에 대한 애증을 읽는 것,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인생의 부침을 읽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안건의 〈몽유도원도〉가 삼원법의 다양한 시점이 한 화면에 통합돼 조화로운 구성을 취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양식이 안평의 사상적 맥락을 투영하고 있다는 내포를 간파하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우리가 그림을 단순히 보지 않고 읽는다는 것은 그림을 산출한 작가의 고통과 욕망,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회와 역사를 추체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완당의 <세한도>는 그 좋은 예다. 이 그림을 읽다보면 우리는 <세한도>를 통해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고 시위했던 완당의 치열한 정신을 만나게 된다.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상국가를 건설하고 싶었던 안평의 사상과 운명이 그림 속에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때 <몽유도원도>는 풍경이 아니라 사상으로 승화한다. 이처럼 그림을 비롯한 예술은 당대의 문화 특성과 민족성이 그대로 투영되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예술은 일종의 표현적인 문화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이때 좋은 예가 된다. 문장과 경술(經術)이 해동의 제일이었다는 김정희. 그러나 그의 충천할 듯한 자부과 기개는 1830년 완당의 부친이 '김노경의 모리(牟利)' 건으로 귀양가고 1837년 친상을 당하면서 이울기 시작한다. 완당도 '윤상도의 옥'에 연루돼 생명만은 건진 채 귀양 길에 올랐다. 그의 나이 55세, 이미 황혼기. 굴욕을 감내하면서 유배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그가 느꼈을 모멸감, 어쩌면 독기마저 품었을 그의 삭막한 내면풍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도의 대정으로 유배돼 했수로 9년에 이르는 본격적인 귀양살이에 돌입했으니. 제주도의 풍광은 왜 그리 눈부셨던지.

<세한도>. 먹선 몇 개가 갈필(渴筆)의 거친 호흡으로 정신의 전위를 담아낸다. 갈필은 싸늘하고 냉기 도는 날카로운 비수를 감추고 있는 듯하다. 갈필은 세상에 경계를 칼날처럼 담아낸다. 또한 갈필의 야일(野逸)하고 간일(簡逸)함은 유배 중 고난의 피바람마저 고요하게 진정시키는 듯하다. 성근 빈틈과 여백은 이 그림이 미완성이 아닌가 오해할 정도로 허전함마저 증폭시킨다. 다만 이 그림 속에는 고송과 잣나무, 그리고 상처난 짐승처럼 웅크린 집 한채가 전부인 것을... 송백의 수직 상승하는 구도. 잔뜩 웅크리며 나즈막하게 사선을 형성하는 집의 미세한 기울기가

그림의 전부라는 것이다.

정치적 불운 이겨낸 정신의 결정체

전면의 노송은 집 쪽으로 약간 경사를 이루며 친화적 관계를 형성한다. 노송은 이름드리지만 가지는 쇠락한 형상이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힘겹게 직각으로 가지를 틀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에서 결코 굽힐 수 없는 기상이 감지된다. 그것은 수직 상승하는 소나무의 힘찬 상향적 기운과 어울려 선비의 기개를 예술적으로 구도한다. <찬기파랑가>에서 "아아 잣나무 가지 높아 / 서리 못 누울 화랑이여" 했던 그 기상과 매운 정신이다. 전면의 나무는 집을 가운데 두고 수직으로 뻗은 원거리의 잣나무와 조화를 이루며 심도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데, 공간의 깊이는 바로 정신의 깊이로 비유된다.

영성한 듯이 그려진 먹선 몇 가닥과 그 먹선이 형성하는 여백의 폭은 우리를 잔뜩 긴장시키는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다. 공간은 풍요롭다. 가옥과 소나무와 잣나무의 상징성은 서로를 연계하면서 청빈한 선비로서 삶의 태도를 지엄하게 나타내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완당은 <세한도>를 빌미로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고 시위했던 것이다. 완당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역관 이상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그림을 그렸다. 지금의 세상은 권력만을 추종하는데 초췌하고 고고한 늙은이에게 이렇듯 애정을 베푼니 가상하다며, "세한 연후야 송백의 시들을 안다(歲寒然後知 松柏之後凋)"는 공자의 말씀을 빗대 그의 행동을 높게 칭찬했던 것이다.

발문과 그림은 그러므로 하나의 주제를 다각도로 표현한 것이고, 시서화의 일치이 이를 일관

되게 집약한다. 힘이 있고 정갈하며 품격 높은 예서체의 <세한도> 화제(畫題) 역시 그림에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것은 그림을 더욱 짜임새 있게 하고 화폭을 입체화한다. 완당은 전경에 몇 그루의 수목을 포치하는 예찬(倪瓚)의 중국식 화법을 따른 것 같다. 그러나 갈필의 강렬한 필치를 통한 기개는 그의 것이다.

이처럼 <세한도>는 불우한 시대를 체감한 한 개인의 고통과 절망. 그 역경을 극복하고 피운 꽃의 결정이다. 죽음을 넘어서 죽음 속에 핀 꽃이다. 빛이다. 유배의 기간 중 갈기갈기 찢긴 육체를 시퍼런 선비정신으로 극복한 자유의 한 표상. 쇠약한 육체, 그러나 빛나는 정신의 소유자. 정치적 박해와 탄핵에도 추상같은 정신으로 우뚝 선 한 정점. 모진 풍설과 칼바람을 비장한 결의로 맞서 마침내 홀로 빛나는 매화처럼, 날카로운 비수로 자신을 단련한 한 떨기 꽃. 추사가 완성한 사상적 깊이와 예술적 성취는 척박한 시대를 심미적으로 전환시킨 황홀한 섬광이며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다.

우리가 그림을 단순히 보지 않고 읽는다는 것은 그림을 산출한 작가의 고통과 욕망,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회와 역사를 추체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림은 실감으로 다가오고 창조적 긴장으로 정신을 일깨우게 된다. 이것이 그림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